

# 圖書館界와 出版界의 共同努力으로 懸案問題 解決을

大韓出版文化協會長 韓 萬 年



萬戶長安이 눈아래 보이는 이런 場所에서 韓國圖書館協會 第21次 定期總會의 祝賀말씀을 드리게되니 더욱 印象的입니다.

그동안 與件이 좋지 않은 이나라 圖書館界의 向上을 위하여 努力해 오신 李 瑄根 會長님, 그리고 도서관인 여러 분에게 出版界를 代表해서 衷心으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. 특히 昨年에는 우리 나라 唯一의 國立中央圖書館을 이 空氣新鮮한 곳으로 發展의 移轉을 하였고, 또 全國 各級圖書館의 內質의 擴充을 더하는데에 腐心하며 市民들 에게 奉仕하신 그 勞苦에 敬意와 고마움을 느낄 따름입니다.

圖書館의 命脈의 根源은 圖書입니다. 이 圖書는 近來 年間 7千餘種씩 國內生産이 되고 있습니다만, 韓國의인 生活風土로 인하여 아직 讀書의 大衆化가 되어있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그 消費量은 生産量의 몇십%밖에 안되는 형편입니다. 이런 社會的 現象은 知識을 배격하고, 나아가서는 理性에 의한 自己完成을 마다하는 안타까운 現象 이라 할 수 있으며, 이에 圖書管理와 讀書指導를 담당하신 圖書館人들의 보다 細心한 研究와 努力이 必要한 것입 니다. 물론, 이 現實에는 關係當局의 보다 積極한 行政上의 後援과, 아울러 圖書館界의 團合된 組織的인 推進力 이 緊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.

의 략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, 제가 보기에는 現行 圖書館法이 우리 現實에 符合되지 않는 點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點에 관해서는 圖書館界 自體는 물론이지만, 우리 出版界에서도 여러 가지 方法으로 關係當局에 建議도 해보고 與論도 시켜보았습디만, 아직도 制定된 그대로이고 現實的인 改正이 없음을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.

오늘 이 總會에서는 이런 懸案問題들도 舉論되기를 期待하면서, 아무쪼록 이 第 21次總會가 契機되어 韓國圖書 館界의 보다 알찬 發展이 있기를 바랍니다.

끝으로, 이 자리에서 第 7回 韓國圖書館賞을 受賞하게되는 여러 분에게도 特別 祝賀를 드립니다.